

# 수도권 기업 광주오면 최고 50억 지원

수도권 기업이 광주로 이전할 경우 최고 50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최고 5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 등 광주시의 주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조건을 현행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20억원과 20명 이상에서 15억원과 1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의 지원 한도액도 최대 12억원

## 市, 내년부터 본격 시행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경우 도로와 하수, 폐수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콜센터 유치에 위해 신·증설 설비의

30% 범위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 감면, 교육과 고용훈련, 시설 등 각종 지원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 이후 광주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36곳이며 투자금액은 460억원에 달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지역 특산품 다양화네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일대에 설치된 '지역 특산품 코너'에서 시민들이 전남 각 지역의 특산품을 신기한 듯 고르고 있다. 제 3회 광주 총장로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인 '지역 특산품 코너'는 오는 22일까지 금남로 곳곳에서 운영된다. /위직림기자 jrvi@kwangju.co.kr

## 내달 10만7천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11월13일부터 10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23개월 소아 ▲임신부 ▲의료인 등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는 닭·오리 농장 종사자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등도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했다.

자치구 보건소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등 무료예방접종만 실시하고, 유료접종은 12월 4일부터 실시한다. 접종료는 3세미만 3천600원, 3세이상 7천 100원이다.

문의: 동구보건소(608-2765), 서구보건소(654-5219), 남구보건소(650-7689), 북구보건소(410-8993), 광산구보건소(940-8567)

/김주정기자 jnews@

# CIS 틈새시장 개척 '성과'

(독립국가연합)

## 광주시 시장개척단 155만달러 수출계약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을 방문중인 광주시 시장개척단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90여명의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상담 활동을 벌여 3건 155만 달러의 수출계약 MOU를 체결했다.

광주지역 8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은 특히 그동안 우리 지역 기업들이 거의 진출을 하지 못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와 러시아의 세 번째 도시이자 과학 기술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를 방문

해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5개 금형업체는 금형기술이 낙후되어 유럽과 중국 등으로부터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CIS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현저하게 비교우위를 인정받았다.

업체별로는 손톱깎이 제조업체인 (주)유원정밀(대표 최영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고급 수입소재 전문 판매업체인 T社와 연간 2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사출금형업체인 신원전자정밀(주)(대표 박일만)은 150여대의 사출성형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타슈켄트의 S社로부터 노후장비와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업파트너가 돼 줄 것을 제의받고 현지 공장을 방문해서 5만달러 사출금형 계약과 함께 100만 달러 상당의 제품별 거래 제의를 받았다.

사출금형업체인 창성정밀(주)(대표 정중호)도 노보시비르스크의 플라스틱용기 제작회사인 S社와 연간 3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MOU를 체결했다.

한편, 광주시는 박광태 시장을 단장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신흥경제권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엔타이(烟台)와 선양(沈陽)을 방문,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해 8건 1천500만달러의 수출계약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해외 투자유치와 시장개척활동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와 시장개척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티슈켄트=채희중기자 chae@

## 상수도료 부과 체계

### 4개 업종으로 축소

광주시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가 현행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산업용 등 5개 업종으로 나뉘져 부과되던 요금을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4개 업종으로 줄였다.

3~6단계로 나뉘었던 누진단계도 2~4단계로 축소함에 따라 산업용과 일반용 등 일부 업종의 경우 10% 안팎의 요금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김주정기자 jnews@

## 올가을 광주 도심 40만그루 심는다

### 임동성당 등 6곳 담장 허물고 소공원 조성

광주시는 17일 가을철 식수철을 맞아 40만그루의 나무를 도심에 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임동성당과 광주서초등학교 등 6곳의 담장을 허물어 나무를 심는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서구 상무지구 자유로(상무병원~운천초교, 800m)에 팽나무

등 큰 나무를 2~3열 간격으로 식재하여 걷고 싶은 가로숲길을 조성하며, 가로화단에 철쭉 2만주를 심는다. 상무지구 시청로에도 느티나무 등 1만6천주를 식재해 녹도화할 계획이다.

유안근린공원 등 2개소의 산책로에 팽나무 등 큰나무 위주의 녹음을 심어, 공원 숲 조성도 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시는 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초순께 '가을철 나무심기(자기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월 첫째 주를 '나무가꾸는 주간'으로 정해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을에 40만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면, 상반기 식수분 110만그루를 합쳐 150만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어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의 2차년도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수돗물 이름 지어 주세요

### 광주시 내달 16일까지 공모

광주시는 수돗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음달 16일까지 광주 수돗물의 이름을 공모집한다.

공모에는 시홈페이지(www.gwangju.go.kr)나 우편

등을 통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과 우수작 1편씩 선정, 각각 50만원,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수돗물의 이름이 확정되면 각종 홍보에서 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 예정인 '병 수돗물'의 공식이름으로 사용하게 된다.

당선작은 오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별상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대금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신선한 재료, 깨끗한 주방, 맛있게 조리합니다.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유리벽 공법(유리벽)**

- 100% 내진성능 확보
- 100% 내화성능 확보
- 100% 내충격성능 확보
- 100% 내압축성능 확보

**유리벽 공법(유리벽)**

- 100% 내진성능 확보
- 100% 내화성능 확보
- 100% 내충격성능 확보
- 100% 내압축성능 확보

**10~20% 할인**

**임대사업자 & 직원 모집**

도곡원 천안공무원